

☺ 세계민속악기박물관 2019년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 안내!

학 습 지 도 안		
프로그램 명	백파이프(Bagpipes)를 찾아 떠나는 시간여행!	
주요 콘텐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유럽. 아프리카. 코카서스. 중동 등지에 분포되어 있는 백파이프 류 민속악기 중 스코틀랜드의 '하이랜드 백파이프', 불가리아의 '가이다', 헝가리의 '두다', 이태리의 '삼포냐', 튀니지의 '미즈와드', 이란의 '네이 안반' 그리고 조지아의 '구다스트비리'와 '치보니' 등 박물관 소장품 특별기획전시. ● 박물관 특별 기획전시와 동시에 이와 관련한 역사 및 문화 등 인문학 강의도 진행하며, 불가리아 백파이프 '가이다'와 함께 '리틀 백파이프'로 불리는 '드보얀카'(불가리아 더블 플루트) 악기제작과 연주 등 체험활동을 결합하여, 세계문화의 다양성과 보편성을 인지하는 융복합 콘텐츠. 	
교육기간	● 4월 2일(화요일) ~ 10월 31일(목요일)	
교육대상	● 초등학생, 중학생·고등학생, 성인	
교육목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악기 관련 전문 지식 전달 외에도 인문소양교육의 활성화. ● 전시 관람 및 활동지 작성 등 스스로 관찰하고 문제 해결하는 동기부여. ● 모듈별 체험활동을 통해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교육문화 환경조성. 	
교육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박물관 주제 유물에 대한 인문학 강의를 바탕으로, 특별 기획 전시된 해당 소장품을 관찰한 후, 학습지의 문제해결을 통해 융복합 사고능력을 키우는 과정과 함께 모듈별 체험활동을 병행한다. ● 총 90분 교육 중, 1차시는 PPT를 통한 대표악기에 대한 오리엔테이션, 2차시 관련 유물 찾기 및 활동지 작성, 그리고 3차시는 악기 만들기 및 연주 체험으로 구성된다. 	
기대효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악기와 관련된 인문학적 배경의 스토리텔링을 통해, 평소 전시해설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던 학습자도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한다. ● 참여자들의 예술적 감수성 고취, 타문화에 대한 관심 증대,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문화상대주의적 관점에서 소양 함양 및 세계화, 국제화 시대에 필요한 세계시민의식을 고취 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기대한다. 	
단계별 세부 교육 내용(학습시간 총 90 분)		
단계	교육 활동 내용	활용 교구재
1	<p>백파이프 악기 소개 인문학 특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백파이프 악기의 구조와 소리의 원리 - 백파이프의 기원과 진화 발전 과정 - 지역별 백파이프의 종류 및 특성 - 백파이프 류 민속악기의 연주 소개 	<p>PPT</p> <p>프로젝터</p> <p>터치스크린</p>

<p>2</p>	<p><u>백파이프 유물 기획전시 참관 및 활동지 작성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역별 백파이프의 실물 형상 비교 관찰 - 백파이프의 소재 등 구체적 차이점 파악 - 백파이프 류 악기의 다양성과 보편성 인지 - 학습지를 통한 백파이프의 인문학 요소 재발견 	<p>전시유물 그래픽패널 활동지</p>
<p>3</p>	<p><u>악기 만들기 및 연주 체험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백파이프와 드보얀카의 지속음 현상 비교 - 드보얀카 '더블 플루트' 악기 만들고 꾸미기 - 드보얀카 연주를 통한 백파이프의 소리 이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체험활동 후 발표와 토론 	<p>악기만들기 체험자료</p>